해양수산부 | 동정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. 11. 17.(화)

황종우 해수부 장관, 부산대학교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 방문

- 현장 소통을 통한 선원 의료 지원 체계 점검 및 선내 근로 환경 개선 추진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7일(화)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'해양 원격 의료 지원 사업'*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의료진 및 사업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.

* 2015년부터 원양 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건강 상담, 응급 처치 지도 등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

이번 방문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선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, 실질적인 선내 의료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황 장관은 부산대학교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찾아 원격 의료 장비를 활용해 육상의 의료진이 선박 내 선원에게 실시간으로 진료 및 처치 지도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였다. 또한, 현장의 의료진과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.

황 장관은 "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은 해상 근무 특성 상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인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다."이라며, "부산대학교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정로 (051-773-5740)
		담당자	사무관	장성은 (051-773-574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개요**

□ 추진배경

○ **의료서비스 접근**이 **어려운 원양선박**(상선·어선) **선원**의 **근로환경 개선**을 위해 **경증질환 진료** 및 **건강 모니터링** 등 선내 **의료서비스 제공** 필요

○ **현행**법상 **원격의료***는 **의료인 간 협업**행위이나, 「선원법」상 **선박의료관리자**는 정식 의료인이 아니므로 **시범의료사업**** 체제로 운영('15~)

*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의사-현지의사 간 협업의료(「의료법」)

** 국가 및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(「보건의료기본법」)

□ 주요내용

○ (**지원체계**) **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**에서 **참여 선사·선박 모집***, **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**에서 원격통신 기반 **의료서비스 제공**

*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, 한국해운협회, 한국원양산업협회 등을 통해 신청선박 모집

○ (**제공서비스**) **응급상황·경증질환** 처치 지도, 개인별 **건강정보**(혈압, 혈당 등)를 선박에서 **측정·송출**하여 **건강상담,** 선상 건강관리교육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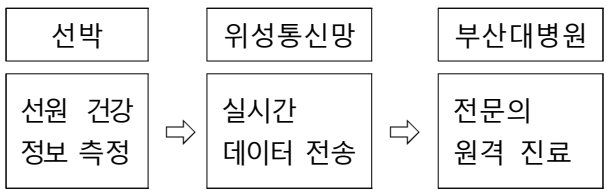
* (원양선박) 원격의료장비를 통해 선원 건강정보(혈압,혈당,심전도 등) 측정·송출
(부산대 해양의료연구센터) 건강정보 분석, 경증·만성질환 진료, 응급상황 처치 지도 등

① (**원격진료**) 실시간 화상으로 경증질환(소화기, 피부 등) 진료 서비스 제공

② (**원격모니터링**) 선박에서 개인별 생체정보(심전도, 혈압 등)를 측정·송출, 병원에서 수신정보 분석·피드백(만성질환 적용)

③ (**건강교육**) 선원 및 의료관리자 건강관리 교육, 원격의료장비 사용자 교육 등 지원

<해양원격의료 운영 체계>



○ (**참여선박/예산**) **총 236척*** 참여('26.10월말 현재, 누계) / '26년 **12.7억원** (국비 8.9억원, 선원기금재단 3.8억원)

* '15년 6 → '18년 60 → '21년 120 → '24년 180 → '26년 12월 240척(예정)

○ (**지원기준**) **국적선** 및 **국적취득부 나용선**(「선원법」 적용대상 선박), 선박 내 **통신환경**, **국내입항** 여부, **국적 선원수** 등 종합 고려